2024.11.25.(월) 증권사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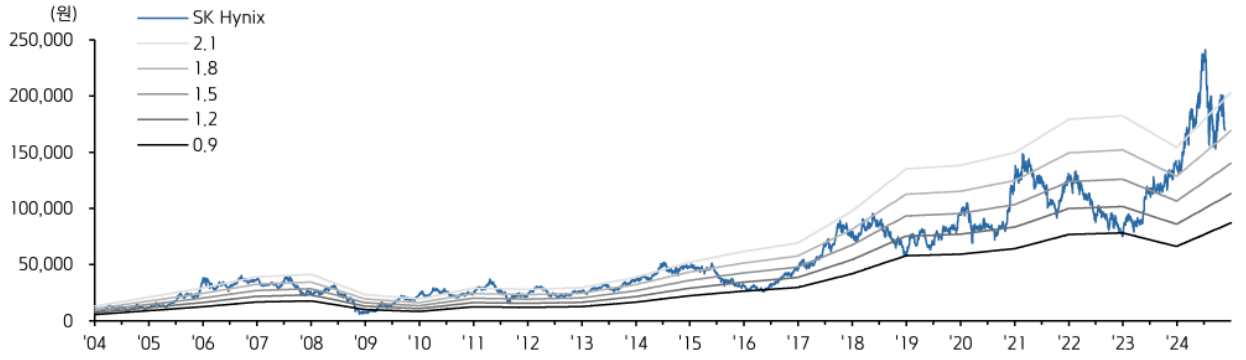
SK하이닉스
NAND 경쟁 심화 예상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4Q24 영업이익 7.4조원, 예상치 하회 전망
SK하이닉스의 4Q24 실적을 매출액 18.4조원(+5%QoQ)과 영업이익 7.4조원(+5%QoQ)으로 하향 조정한다. CXMT, JHICC, Kioxia 등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4Q24 범용 메모리의 판매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DRAM: 영업이익 6.7조원(+8%QoQ) 전망. DRAM 가격 전망 -1%QoQ로 하향 조정. 제품 가격 변동률은 서버 DRAM +6%QoQ, PC DRAM -4%QoQ, 모바일 DRAM -9%QoQ로 각각 예상. 출하량은 서버 수요 증가세 이어지며, +4%QoQ 기록할 전망
NAND: 영업이익 0.8조원(-17%QoQ) 전망. eSSD 판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Mobile(-15%QoQ), client SSD(-10%), NAND 단품(-11% QoQ)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
1Q25 영업이익 5.4조원(-27%QoQ) 전망
1Q25 실적은 매출액 15.9조원(-14%QoQ)과 영업이익 5.4조원(-27%QoQ)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수요 비수기 진입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판매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NAND 부문의 경우 수급 악화와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Q25 단기 판매량과 실적이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어 보이지만, 우려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NAND의 업황 흐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는 21만원으로 하향 조정
SK하이닉스를 포함한 DRAM 업체들의 CapEx 하향 조정이 2025년 범용 DRAM 및 HBM3e의 업황 호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사의 기존 시각을 유지한다. 당사는 HBM3e의 GB당 가격이 HBM3 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범용 DRAM의 가격도 2Q25부터 반등하며, SK하이닉스 DRAM 부문의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NAND 부문은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24~'26년 ESP 전망치 변경을 반영하여 21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44,622	32,766	64,860	73,640
영업이익	6,809	-7,730	22,801	26,606
EBITDA	20,961	5,943	36,121	42,480
세전이익	4,003	-11,658	22,648	26,383
순이익	2,242	-9,138	17,715	20,31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230	-9,112	17,667	20,259
EPS(원)	3,063	-12,517	24,267	27,829
증감률(%YoY)	-76.8	적전	흑전	14.7
PER(배)	24.5	-11.3	7.0	6.1
PBR(배)	0.9	1.9	1.8	1.4
EV/EBITDA(배)	3.7	22.0	3.9	3.0
영업이익률(%)	15.3	-23.6	35.2	36.1
ROE(%)	3.6	-15.6	28.5	25.3
순부채비율(%)	35.4	52.3	25.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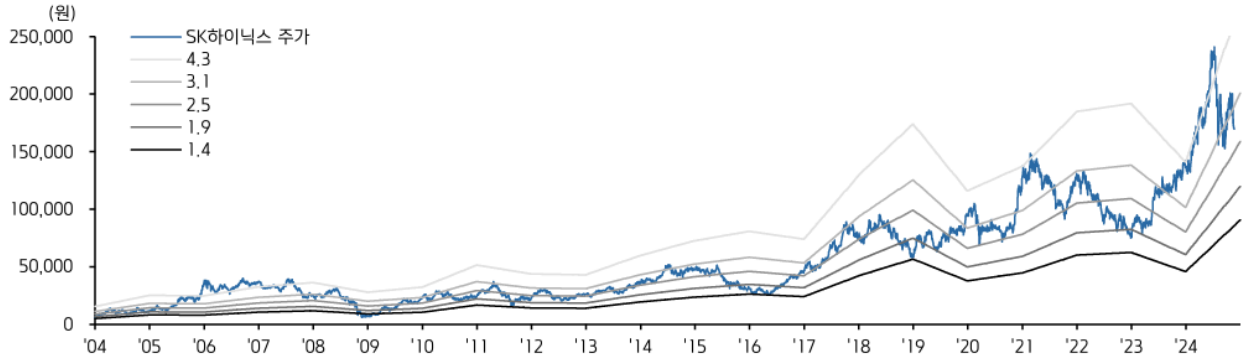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B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S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글과컴퓨터

2025년 글로벌 AI기업과 협업 기대

[출처] IBK투자증권 이승훈 애널리스트

미스트랄(Mistral) AI, 인텔 등과 협업으로 글로벌 진출 모멘텀 기대

AI기술의 고도화와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 동사의 AI서비스는 고객의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주목. 주요 AI서비스는 한컴독스AI(생성형 AI기술 기반 문서 솔루션), 한컴피디아와 한컴어시스턴트(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AI도구) 등이 있으며 이들 기반으로 다양한 AI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 B2G 및 B2B 고객사 20여 곳과의 PoC(Proof of Concept, 제품 실증 사업)를 진행한 이후 본 계약으로 연결하여 상업화를 가속화할 계획. 한편 유럽의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본사 AI기업 미스트랄AI와의 협력을 기대. 이 회사의 AI기술을 한컴어시스턴트에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 추가적으로 동사는 온디바이스 AI분야에서 인텔의 주요 파트너사로서 한컴어시스턴트의 온디바이스 확장성 테스트를 초기 버전부터 진행. 향후 AI PC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더 강해지는 AI모멘텀

3분기 매출액 712억원(YoY +24.9%, QoQ -21.4%)과 영업이익 85억원(YoY +159.9%, QoQ-57.4%) 기록. 컨센서스(매출액 688억원, 영업이익 61억원) 모두 상회. 클라우드 부문이 성장(YoY +182.6%)하며 매출 비중 31.5%까지 상승. 한컴라이프케어의 수익성 개선이 호실적 뒷받침. AI모멘텀이 일시적이 않다는 것 증명. SaaS와 웹기반 제품 및 교육 및 공공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지속 증가. 한편, 한컴라이프케어는 소방과 방산 부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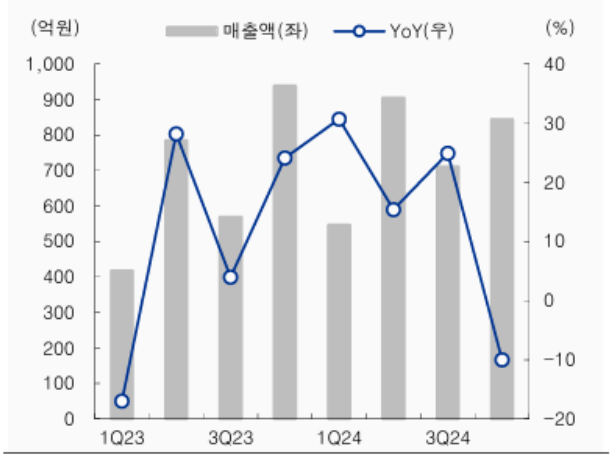
목표주가 33,000원으로 하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최근 2년간 12FW PER의 상단값인 19.7배를 적용하여 산출. 자회사들의 부진을 반영,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하향. 그러나, 본사 중심으로 AI모멘텀이 빠르게 실적 개선으로 반영되어 2025년 AI모멘텀의 수혜 지속 전망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42	271	301	342	392
영업이익	25	34	41	51	65
세전이익	-15	-21	49	54	67
지배주주순이익	47	15	39	41	51
EPS(원)	1,855	606	1,614	1,682	2,114
증가율(%)	287.2	-67.3	166.3	4.2	25.7
영업이익률(%)	10.3	12.5	13.6	14.9	16.6
순이익률(%)	7.0	-10.0	12.6	12.0	13.0
ROE(%)	15.8	4.6	11.1	10.6	12.2
PER	6.6	23.5	14.3	13.7	10.9
PBR	1.0	1.0	1.5	1.4	1.3
EV/EBITDA	6.0	6.1	9.2	8.4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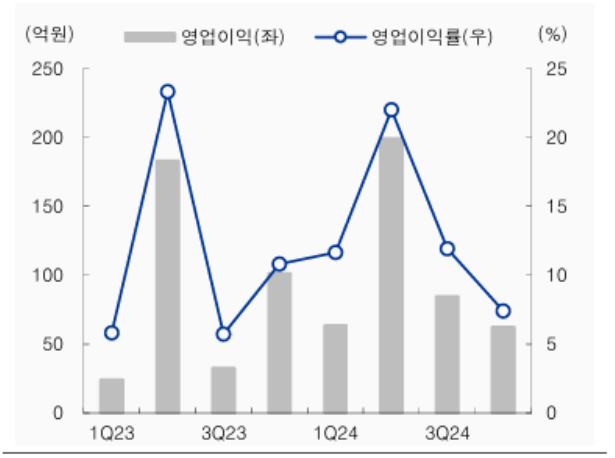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한글과컴퓨터 매출액 및 YoY 추이



자료: 한글과컴퓨터, IBK투자증권

그림 2. 한글과컴퓨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한글과컴퓨터,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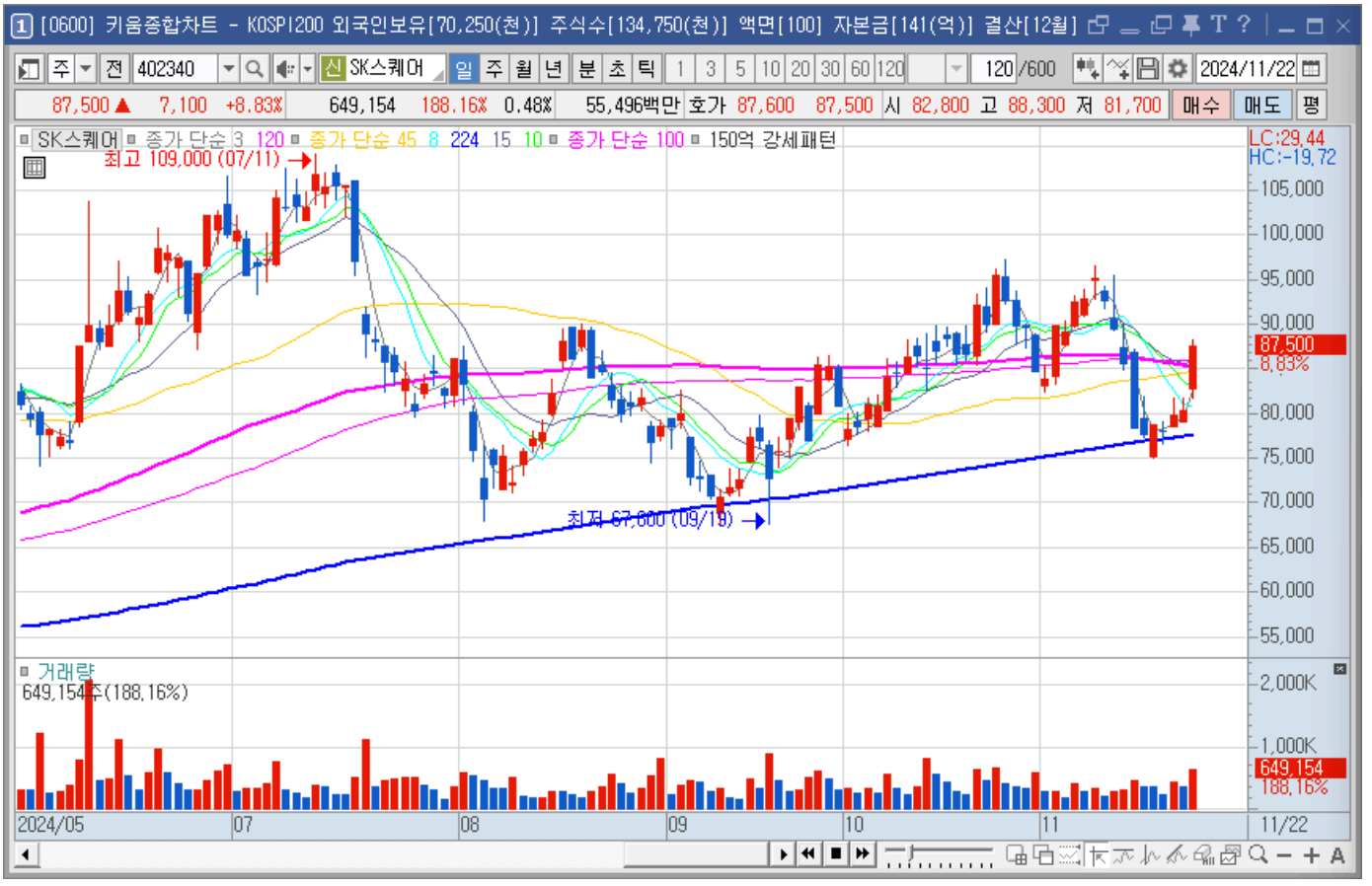
SK스퀘어
기업가치 제고방안 발표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기업가치 제고방안에 따른 NAV 대비 할인율 축소 기대

SK스퀘어는 21일 기업가치제고 방안과 2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
기업가치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1) 2027년까지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50% 이하로 축소, 2) 2025~27년 자기자본비용(COE)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실현, 3) 2027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달성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주요포트폴리오 자회사의 흑자를 달성하고, 반도체, AI 분야에 신규 투자를 추진해 ROE 개선 노력을 진행할 것. 또한, NAV 할인율이 높을 경우 자사주 매입과 소각하기로 언급
SK하이닉스가 NAV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손익 개선과 하이닉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A를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

자사주 매입 소각 긍정적
2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 발표도 주가에 긍정적. 2024년 4월 매입한 1천억원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25일부터 추가로 1천억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계획을 밝힘. SK텔레콤으로부터 분할할 당시부터 투자전문회사로서, 확보한 투자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잘 유지하고 있음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277	2,042	2,168	2,164
증감률	*-36.0*	*811.8*	*6.2*	*-0.2*
영업이익	-2,340	3,153	3,711	3,822
증감률	*적전*	*흑전*	*17.7*	*3.0*
영업이익률	*-102.8*	*154.4*	*171.2*	*176.7*
(지배지분)순이익	-1,287	3,068	3,671	3,888
EPS	-9,137	22,587	27,240	28,852
증감률	*적전*	*흑전*	*20.6*	*5.9*
PER	N/A	3.6	3.0	2.8
PBR	0.5	0.6	0.5	0.4
EV/EBITDA	N/A	2.2	1.0	0.0
ROE	-8.0	18.4	18.5	16.6
부채비율	13.6	11.1	9.3	8.0
순차입금	-1,327	-4,120	-7,543	-11,192

단위: 십억원, %, 원, 배



하나투어

Not only 패키지, But also 자유여행

[출처] 현대차증권 김현용 애널리스트

2025년 자유여행 시장점유율 확대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개시

올해 출국자수가 2,750만명으로 2019년의 96%까지 회복되는데 반해, 동사 패키지 송출객수는 214만명으로 동기간 회복률은 74%에 그치는 상황. 즉, 구조적인 자유여행 비중 증가가 진행 중으로 판단되며, 동사는 자유여행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1)현지투어플러스, 2)내맘대로(에어텔, 현지교통, 액티비티 자유 결합)를 주력 상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25년초부터 본격화할 계획. 특히, 현지투어플러스의 경우 2030 세대들이 GetYourGuide, 마이리얼트립 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풍부한 상황에서 현지 및 사후 A/S까지 대응 가능하여, 수요 급증(24년 6월 론칭 시점 대비 예약자수 10배 증가)으로 이어짐

"남극 여행"도 "포르쉐 아우토반 질주"도 "밍글링 투어"도 하나투어 패키지로 간다
패키지 수요 진작을 위해 동사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을 기반으로 신상품 출시. 새로운 지역은 남극, 사우디, 티벳 등 접근이 어려웠지만 매력적인 여행지들이고, 새로운 경험은 포르쉐 드라이빙, 베르사유 궁전 숙박, 전문가 동행 테마여행 등을 제공 중. 새로운 만남은 밍글링 투어로서, 2030 5세대를 겨냥하여 취미를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대끼리 여행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대표적으로 보홀 프리다이빙, 발리 서핑 등이 판매 중

25년 탑라인 증가 확실시, 비용도 상각비 및 일회성 비용 빠지며 큰 폭의 이익 증가 예상
2025년 패키지 송출객수는 신상품 효과 및 중국 회복으로 최소 250만명(YoY +17%, 당사 전망치는 270만명)을 예상. 탑라인 증가의 가시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영업비용 측면에서도 무형자산 상각비의 구조적 감소(연간 70억원), 티메프 관련 일회성 비용(약 65억원)의 제거로 연간 135억원의 비용 감소가 확실시. 25년 OP는 전년비 59% 급증한 886억원 전망

2,500억대 순현금 & 배당수익률 3.5%, 그리고 성장을 위한 M&A까지 투자 메리트 풍부
3분기말 순현금 2,536억원이고 결손금 3천억원 보전 시점까지 법인세 지출이 없어 영업이익 개선에 준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대. 25F P/E 10배로 밸류 메리트가 높은 상황에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3.5%인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판단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EBITDA (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1,150	-1,012	-668	-699	-4,370	적지	N/A	7.9	NA	NA	0.0
2023	4,116	340	470	620	2,932	흑전	17.8	4.9	9.4	32.0	9.6
2024F	6,550	556	601	779	3,745	27.7	14.7	5.8	7.3	37.2	3.5
2025F	7,336	886	876	932	5,461	45.8	10.1	4.2	5.3	48.2	5.1
2026F	8,204	993	957	1,015	5,967	9.3	9.2	3.3	4.2	40.4	5.8

* K-IFRS 연결 기준

KG스틸

업황 침체에도 양호한 수익성 유지 중

[출처] 상상인증권 김진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

KG스틸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Cost of Equity 9.72%와 5년 평균 FWD ROE 5.74%를 적용해서 Target P/B 0.41배를 산출하였으며, 3년 평균 FWD BVPS 23,395원을 통해 목표주가를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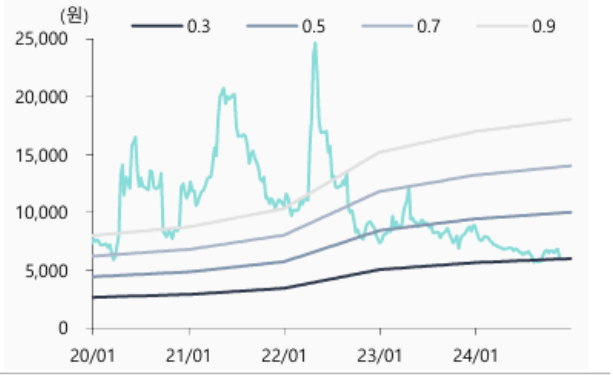
국내 컬러 및 석도강판 1위 업체, 고부가 제품과 주주환원 정책으로 승부
동사는 열연강판을 가공하여 아연도금, 컬러, 석도강판을 제조하는 후가공업체이며. 국내 컬러·석도강판 시장에서 각각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고부가 제품군 위주의 포트폴리오와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 동종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분기 총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총발행주식수의 3%)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며 벨류업 기대에 부흥하기도 했다.
3Q24 Review : 합리화 투자에 따른 가동률 하락
KG스틸의 3Q24 실적은 매출액 8,349억원(-5.7 YoY, -2.7% QoQ), 영업이익 427억원(-46.8% YoY, -42.7% QoQ, OPM 5.1%)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매출액 8,526억원, 영업이익 740억원)를 하회했다. 시황 부진 이어지며 판매량은 56.6만톤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판가 역시 상대적으로 약세 지속하였다. 열연가격 동반 하락으로 제품과 원재료 간 스프레드 부담은 크지 않았으나, 인천공장(1&2CGL)의 합리화 투자 진행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현지 고객사로부터 동사의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출 쿼터 면제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미국향 수출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3,820	340	536	5,359	1.4	4.3	0.4	37.7	2.0
2023	3,430	280	234	2,343	3.8	5.0	0.5	13.1	2.2
2024E	3,307	218	136	1,358	4.6	4.8	0.3	7.0	3.2
2025E	3,513	255	184	1,843	3.4	3.9	0.3	8.8	3.2
2026E	3,753	312	230	2,299	2.7	2.9	0.3	10.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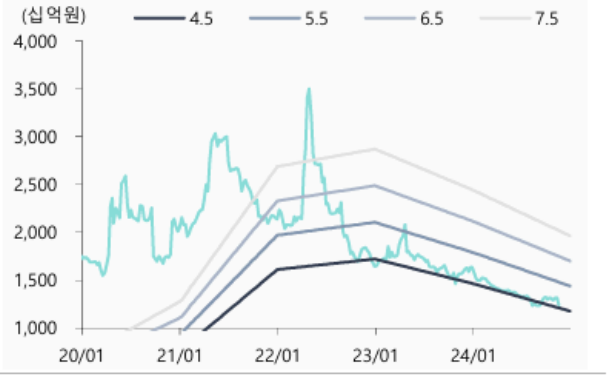
자료 :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그림 1. KG스틸 PBR 밴드



자료: 상상인증권 추정

그림 2. KG스틸 EV/EBITDA 밴드



자료: 상상인증권 추정

제이엘케이
다시 찾아온 의료 AI 시대
[출처] 한양증권 이준석 애널리스트
리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시점

국내 의료 AI 기업에 대한 긍정적 센티멘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18일, 루닛은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Lunit Scope와 관련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첫 협업 계약을 발표하였으며, 뷰노는 다음날 19일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의료기기 VUNO Med-Chest X-ray에 대한 FDA510(k) 승인을 발표하였다. 동사는 자사 AI 뇌졸중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FDA 510(k)승인 및 신청을 보유한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의 AI뇌졸중 솔루션(JLK-LVO, JLK-CTP, JLK-PWI)이 FDA 510(k) 승인을 완료했으며, 지난 15일JLK-ICH에 대해 추가 신청을 진행했고, 연내 1~2개의 추가 FDA 신청이 예상된다. 올해 초 목표로 했던 1개 승인에서 총 3개의 승인을 달성하며 이미 초과 성과를 거두었다. FDA 510(k) 승인은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승인을 받는 것 자체로 업계 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 AI 기업들에 대한 센티멘트 회복 상황에서 FDA 허가를 공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동사의 Valuation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ISC(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2025

내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LA에서 국제뇌졸중컨퍼런스(ISC)가 개최될 예정이다. ISC는 뇌졸중 연구와 치료 분야의 최신 발전은 공유하는 대표적인 학술 대회로, 최근 의료 AI 기술에 대한 논의와 발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의 경쟁사인 Viz AI와 Rapid AI도 ISC 2024에 참석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년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ISC는 뇌졸중 분야에서 저명한학술 대회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신경과 및 신경외과 의사를 비롯해 수천 명이 참석하고, 글로벌네트워킹이 가능한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JLK-DWI를 활용한 주제로 ISC 2025 연구 초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동사는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자사 AI 뇌졸중 솔루션 채택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매출 발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Investment Point; 기대가 되는 내년 상반기

올해 FDA 510(k) 승인을 받은 3가지 솔루션은 내년 상반기 미국보험청(CMS)으로부터 NTAP 승인을 받아 미국 민간보험사 및 의료기기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기신청된 AI 뇌졸중 솔루션의 FDA 510(k)승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1~2개의 추가 신청도 계획되어 있다. 미국 사보험사와의 계약, FDA 신청을 위한 필요 자금은 지난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49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작년 동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596.7% 상승 마감하였다. 당시 주가가 30,000원 대까지 상승했던 주요 요인은 국내 비급여보험 적용 기대감과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진출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 역시 AI 의료진단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미국 내 의료 AI에 대한 관심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동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억원, 연결)	2019A	2020A	2021A	2022A	2023F
매출액	2	45	38	34	25
영업이익	-108	-75	-74	-86	-71
영업이익률	-4702.5%	-167.8%	-196.1%	-252.6%	-287.2%
순이익[지배]	-106	-76	-76	-90	-73
EPS(원)	-783	-469	-461	-545	-423
PER(배)	(8.7)	(20.0)	(15.3)	(5.3)	(47.8)
PBR	3.0	4.9	4.7	2.8	29.7
EV/EVITDA	(7.4)	(22.0)	(18.5)	(7.2)	(64.9)
ROE(%)	-29.3%	-22.8%	-27.9%	-45.6%	-51.6%

자료 : 제이엘케이, 한양증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2.0

[출처] 유안타증권 하현수 애널리스트

시밀러 품목 확대

25년 최대 5개의 신규 시밀러 품목을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6개 품목에서 11개까지 시밀러 품목이 늘어날 전망. 스테키마와 CT-P47이 추가되며 자가 면역 질환 포트폴리오 강화가 예상되며 옴리클로, CT-P41 등으로 기존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중심에서 천식,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군으로 제품군이 확대될 전망.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지속과 신규 시밀러의 매출 기여가 시작되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 전망. 직판 전환과 헬스케어 합병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대하며 유럽에서 트룩시마 점유율 회복과 시밀러 출시가 늦었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유럽 Infliximab 점유율도 램시마 IV의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매분기 램시마SC의 점유율이 1~2% 증가하며 전체 램시마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며 실적에서 유럽 매출 기여도는 높아지는 중.

짐펜트라,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

반면, 24년 출시한 짐펜트라는 3Q24까지 누적 매출 86억원으로 아쉬운 실적을 기록. 짐펜트라의 부진에는 예상보다 지연된 PBM 등재와 셀트리온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영향으로 판단. 10월 3대 PBM 등재를 마치며 대부분의 보험 커버리지에 등재를 마쳤으며 SNS, TV 광고를 시작하며 브랜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짐펜트라는 SC 제형 특성상 자가 투약이 가능해 안정적인 혈중 농도 유지가 가능. ACG에서 공개된 짐펜트라와 Infliximab/면역억제제 병용 비교 데이터는 짐펜트라 단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며 처방 경쟁력을 재확인. PBM 등재와 인지도 개선을 통해 25년부터 짐펜트라 매출도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유지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039	171.7	17.9	1,002	3.7
영업이익	301	1,536.1	45.1	278	8.6
세전계속사업이익	316	흑전	77.2	269	17.7
지배순이익	258	24,340.7	200.9	223	15.5
영업이익률 (%)	29.0	+24.2 %pt	+5.5 %pt	27.7	+1.3 %pt
지배순이익률 (%)	24.8	+24.5 %pt	+15.1 %pt	22.2	+2.6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2,284	2,176	3,533	4,474
영업이익	647	651	597	1,633
지배순이익	538	536	444	1,397
PER	45.5	43.5	84.0	26.6
PBR	5.8	2.0	2.1	1.9
EV/EBITDA	28.2	26.9	38.2	19.6
ROE	13.4	5.1	2.6	7.9

자료: 유안타증권

[0600] 키움종합차트 - KOSPI200 외국인보유[49,689(천)] 주식수[217,079(천)] 액면[1,000] 자본금[2,205(억)] 결산[1
068270
셀트리온
2024/11/22
173,500 ▼ 200 -0.12% 342,210 55.48% 0.16% 59,718백만 호가 173,600 173,500 시 174,500 고 176,500 저 173,000
매수
매도
평
셀트리온 종가 단순 3 120 종가 단순 45 8 224 15 10 종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최고 211,000 (07/30)
최저 160,300 (11/15)
LC:8,23
HC:-17,77
205,000
200,000
195,000
190,000
185,000
180,000
175,000
173,500
-0.12%
165,000
160,000
거래량
342,210주(55.48%)
3,000K
2,000K
342,210
55.48%
2024/05
07
08
09
10
11
11/22